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아동 의견 수렴' 아동정책 만든다

전주매일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윤 2월 20일) 제32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일 전주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우범기 전주시장와 함께 전주시청 강당에서 청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더 특별한 전북, 전주시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전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등 시정 주요 현안 논의
전주혁신창업 허브 찾아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창작 공간 활성화 관련 지역 문화예술인과 오찬도
"전주 발전, 전북에 큰 발전… 적극 협력·지원할 것"

올해 초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이번엔 전주를 찾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일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주시는 이날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시대, 전주시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북도정과 전주시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전주시 일일 명예시장으로서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드론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왕의 궁원' 프로젝트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시 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진행된 '청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혁신창업허브를 방문해 캠틱종합기술원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드론기업지원장비와 드론시뮬레이터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일일 명예시장으로서 전주지역 문화예술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문화공간 조성 확대 등 예술인의 창작 공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방문해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주신 김관영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는 도청 소재지이자 전북의 중심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해야 전북이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오수 제2농공단지 160억 투자

경원쇼트기계·수엔지니어링 등 금속제조업 3개사 입주 결정
82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장 10월 준공 특장차 차체 등 생산

지난 7일 임실군청에서 열린 오수 제2농공단지 투자 협약식.

올해 6월 준공이 예정된 오수 제2농공단지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임실군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심민 임실군수, 금속제조업 3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수 제2농공단지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규모는 총 160억원이다.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유)경원쇼트기계(대표이사 한창섭), (유)수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창섭,구연희), (유)에스원테크(대표이사 김영현)로 이들은 오수 제2농공단지에 총 160억원을 투자하고, 8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11만㎡의 22.5%에 달하는 약 2만5,000㎡ 부지가 판매돼 향후 농공단지 분양에도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제품 생산 공정상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이들 기업은 이달 중 공장을 착공하고 10월 준공해 산업용 기계장비, 특장차 차체, 자동차 차체용 크레인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유)경원쇼트기계 한창섭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가 시급해 조기에 공장을 착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와 회사가 함께 발전하는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정의 제1목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더욱 번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공사 공정률이 90%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투자기업의 계획에 맞춰 공장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잼버리 명예위원장 추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현숙·김윤덕·한창섭·박보균·강태선)는 명예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현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사진)을 추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야영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기문 명예위원장은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세계잼버리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반기문 명예위원장은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잼버리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과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